

나눔의 손잡기 성금 1500만원
중고생 15명에 장학금 전달

"1년 동안 모은 성금 학생들 장학금으로 드려요."
본사가 1년 동안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추진하며 모금한 성금 1500만원을 종립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본사는 11월 19일~20일 공주 감사에서 '제2회 나눔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다. 장학금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중·고, 김제 금산중·고 등, 지난해 성금을 전달한 서울·경기지역 12개교를 제외한 15개 학교 45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전달된다. 이날 행사는 장학금 전달식을 비롯해 장학생과 인솔교사들의 감사 템플스테이, 사찰탐방,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월동준비 막막하네요



천바람이 불면서 불교계 복지시설들의 '겨울나기'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수복 지원과 후원이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사진은 선재동자원의 지난해 김장 모습. 사진제공=선재동자원

사정은 마찬가지다. 약 90명의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지는 올해 건물을 신축했으나 막판 공사비 부족으로 보일러 시설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있다. 연료비, 시설보수비 등 시설 유지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김장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원봉사자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동지'가 위치한 곳은 교통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이다.

100명이 넘는 장애인 식구들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원주 소적새마을(원장 성목), 이전 자비복지타운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겨울나기 준비에 어려움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노후 된 가전제품이나 보니 연비가 좋지 않은데다 물가마저 올랐다.

원장 성목 성님은 "소적새마을 식구들이 좋은 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포천 목련의 집(원장 양영화, 031-534-8554)과 파주 거북마을(원장 혜각, 031-953-4801)도 사정이 어렵다.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두 시설은 모두 큰 걱정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목련의 집 양영화 원장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연료비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북마을 혜각 성님은 들어오는 후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년 된 시설 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지하철 망월사 역에서 판잣집이 늘어난 길을 따라 걸다 보면 '선재동자원(원장 지산, 031-872-9629)'이 나타난다. 아이들 50여명과 스님 아버지가 살고 있다.

아직 조건부 신고시설로 남아있는 선재동자원에는 10억의 빚이 있다. 2003년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다시 짓느라 생긴 빚이다. 이 때문에 스님은 날마다 밤잠을 설친다.

한발 한발 다가오는 겨울은 스님을 더욱 근심스럽게 만든다. 당장 11월 18일부터 사흘간 김장과 겨울나기 준비를 할 계획인데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매년 이웃 특기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정에도 김장 김치를 나눠주고 있다. 그 양만도 배추 5000포기, 윷배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스님의 김치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안산 대부도 동지청소년의 집(원장 자월, 032-883-9033)도

물을 지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항상 자원봉사자 수가 모자라 고민인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 031-759-5320)도 겨울나기가 막막하다. 김장 인력이 충분할까 고민인 것이다.

이밖에도 사찰 인근의 한 여관을 빌려 아동 70명을 보육하고 있는 고성 보리수동산(원장 성숙, 055-672-0078)과 사찰에서 청소년 19명을 양육하고 있는 부산 보광정사(원장 지홍, 051-524-8932)에도 연료비와 나눔의 손잡이 필요하다. 특히 보광정사 지홍 성님은 "올해는 배추를 직접 재배해야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복지시설들 후원·지원 줄어 겨우살이 걱정
선재동자원, 동지청소년의 집 등 도움 호소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

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보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것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류보내기 기금' '시설이동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

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활동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보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밀가루 반죽하고, 면 뽑고, 버무리고 맛있는 자장면을 만드는 대성사 보리봉사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 인기. 사진은 10월 28일 대성사 앞에서 열린 무료급식 봉사 모습.

대성사 보리봉사회

사랑으로 반죽... "면발, 끝내줘요!"

10월 28일 금요일, 대구 천태종 대성사(주지 정산) 앞에는 7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성사 보리봉사회(회장 김정길)가 준비하는 무료급식 날이기 때문이다.

대성사 보리봉사회가 준비한 무료급식 메뉴는 자장면이다. 메뉴가 특이한 만큼 인기가 높지만 준비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밀가루를 반죽해 숙성시키고,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자장 소스를 만드는 일은 하루 전부터 시간을 맞춰 준비해야 하고, 국수를 삶고 행구어 자장소스를 끼얹는 일은 급식시간에 맞춰 한꺼번에 빠르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 12시, 급식시간이 되자 30여명의 보리봉사회원들은 마치 정밀한 기계가 움직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자장면은 반죽이 중요한데, 소금 비율과 반죽 숙성 정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오늘의 봉사팀장 정동수 수성구 지회장의 "자장면 특강"에서 정성스런 마음이 배어났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나은 이상서 서구지회장은 "이게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야채를 오래 익

혔는데 맛있게 잡수시니 즐겁다"며 상긋 웃었다. 이런 이야기에 수성구에서 온 한 노보살도 "봉사활동 덕분에 무료함을 달래고 허전한 마음에 위안이 됐다"며 감사해 했다.

대성사 보리봉사회는 대성사 신도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1995년 발족했다. 현재 3만여 명에 달하는 신도 중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보리봉사회는 98년부터 시작한 자장면 무료급식 외에 50사단 위문, 경찰의 날 달서경찰서위문,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체장애인수용시설 해양원 위문, 신당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리봉사회의 무엇보다 큰 자랑은 일체 모든 활동을 자재적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보리봉사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송수용 사업위원은 "모든 봉사활동비는 바자회와 순수 회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절대 사중의 재원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봉사활동은 신도회의 화합과 수행에 더 큰 활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대구=배지선 기자

자장면 재료 후원해 주세요

대성사 보리봉사회의 자장면 맛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보리봉사회 회원들은 "우리가 만든 자장면을 맛나게 드실 수 있도록 봉사를 계속하고 싶은

데 자장면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채소, 자장 소스 등의 재료가 항상 부족해 아쉽다"면서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053)651-6108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중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13년전(1993년)설립되어 파워볼, 신산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지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오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바르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 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병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 기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약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심, 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